

46 방수공사 작업자에서 발생한 소뇌성 보행실조

성별	남성	나이	35세	직종	방수공	직업관련성	높음
----	----	----	-----	----	-----	-------	----

1 개요

근로자 ○○○는 2014년 6월 2일부터 7월 12일까지 □사업장에 근무하였다. 아파트 재도장 및 누수 방수공사 현장에서 방수공으로 근무 중 아크릴아미드가 주성분인 이액형 아크릴 수제를 혼합하여 이액형 아크릴 방수액 주입기를 사용하는 작업 중 방수액이 안면에 자주 노출되었고, 2014년 7월 11일부터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 및 발음이 어눌해 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2014년 7월18일-29일 대학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소뇌성 보행실조 및 말초신경병증 진단 받았다. 근로자는 아크릴아미드에 의해 소뇌성 보행실조 및 말초신경병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2014년 11월 18일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산업안전보건 연구원에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의 결정을 위한 역학조사를 요청하였다.

2 작업환경

근로자는 방수공으로 일하였고, 이전에는 보조로 일하다가 최근 4년 전부터 주입 작업을 하였다고 하며 주로 했던 작업은 우레탄 방수, 발포 작업, 아크릴아미드 작업이라고 한다. 근로자는 2014년 6월 2일부터 7월 12일까지 아파트 재도장 및 누수방수공사 현장에서 방수공으로 근무하였다. 주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천장 및 벽의 방수 작업을 하였다. 하루 7시간 정도 한 달에 대략 20-25일 가량 근무하였다.

3 해부학적 분류

- 신경계 질환

4 유해인자

- 화학적 요인(아크릴아미드)

5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2014년 7월 11일 다리에 힘이 빠지고, 발음이 어눌해 지는 등의 증상이 있었고, 2014년 7월 18일- 29일 대학병원에 입원하였고, 대뇌 SPECT 및 근전도 검사 등을 시행하여 소뇌성 보행실조 및 말초신경병증으로 진단 받았다. 환자의 과거력을 보면 특이 소견 없는 것으로 의무기록에 적혀 있지만, 건강보험 수진 내역을 살펴보면 고혈압 및 고지혈증으로 진료 본 기록이 있다. 음주는 거의 하지 않았고, 흡연은 24년간 하였고, 과거에는 한갑 정도 피웠고, 최근에 2갑 정도 피웠다.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는 2010년에 입사하여 약 4년간 아파트 재도장 및 누수 방수공사 현장에서 방수공으로 근무하였다.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있는 작업환경요인으로는 납, 비소, 노말렉산, 아크릴아미드 등이 있다. 아크릴아미드는 피부를 통한 흡수가 훨씬 높은 물질이다. 피부 및 호흡기로 노출된 아크릴아마이드의 1일 흡수량은 미국환경보호청의 노출평가를 근거로 하여 4.27 mg(최소)~36.05 mg(최대)으로 추정되며, 이는 현재 공기노출 기준을 고려한 흡수량의 최대 139배에 해당한다. 또한 제품변경에 따른 아크릴아미드 조성증가 및 피부손상에 의한 흡수증가 등을 고려하면, 이보다 상회할 수 있는 수준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소뇌성보행실조 및 말초신경병증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끝.